“대학전법센터로 청년 포교 활성화”

서울대불교동문회 6일 창립 60주년 학술대회

‘청년 전법 현재와 미래’ 주제로 재정 불안정 등 대불련 기반 약화 교육 · 연수 개발할 싱크탱크 부재 외부 의존 필연… 지원책 시급해 ‘대학전법센터’ 설립 근본적 대안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창립 60주년을 맞은 서울대불교동문회는 10월 6일 ‘한국불교 청년 전법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기념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나날이 감소하고 있는 청년 불자들. 청년층 전법을 위해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서울대불교동문회(회장 조화제)는 10월 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한국불교 청년 전법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창립 60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대회에는 대학 포교의 활성화 방안과 대학생 · 청년들을 위한 명상법 등을 제안하는 논문들이 발표됐다. 특히 임동주 前 한국학중앙연구원 사무국장은 청년불교의 중추 역할을 하고 있는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이하 대불련) 활성화 방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임 前 사무국장은 발표논문에서 대불련의 역사와 현황을 분석하고 현재의 문제점을 분석했다.

그가 진단한 현재 대불련의 문제점은 △탈종교화 등으로 대불련 전통적 기반 약화 △재정적 불안정 지속 △대학생 교육 및 연수프로그램 등을 개발할 싱크탱크 부재 △회원 · 임원 · 지도위원 등 내부 교육 시스템 미비 등으로 압축된다.

임 前 사무국장은 “현재 대학 포교의 가장 어려운 점은 ‘불교에 대한 대학생들의 관심 부족’인 만큼 이에 대한 불교계 차원의 근본적 대책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대불련 재정에 대해서는 “수입금 규모가 작고 금액도 일정치 않아 재정이 매우 불안정하다. 특히 경상비가 후원금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불교계에서의 위상과는 다르게 대불련의 운영기반이 매우 취약함이 단적으로 드러난다”고 분석했다.

대불련 활성화 방안으로 임 前 사무국장은 △‘대학전법센터’ 설립 △청년대학생 불교기관 ‘영 부디스트 아카데미(가칭)’ 개설 △인터넷 통한 불교 홍포 네트워크 프로그램 운영 등을 제안했다.

‘대학전법센터’는 지난 2013년 대불련 창립 50주년 기념대회에서 청년대학전법의 리더스 산실 및 싱크탱크로 대불련이 설립을 제안 · 주창한 것이다. 하지만 5년여 가 지난 지금까지 설립이 진행되고 있지 않다.

임 前 사무국장은 “‘대학전법센터’는 대불련 활성화를 기하여 청년전법의 새 장을 열고자 한 야심찬 계획이자 근본적 대안”이라고 평가하며 센터 건립을 대불련 활성화의 중점 방안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김봉래 BBS불교방송 선임기자가 ‘대학 포교 활성화 방안에 관한 시론’을, 전재성 한국빠알리성전협회 대표가 ‘사성제의 비주얼라이제이션과 명상수행’을, 김재성 능인대학원대학교 명상심리학과 교수가 ‘붓다가 가르친 명상과 현대적인 적용’을 각각 발표했다.

한편, 서울대불교학생회는 1958년 11월 법대 불교학생회를 전신으로 창립됐다.

현재까지 700여 명의 동문을 배출했으며, 약 20명이 출가해 수행자의 길을 가고 있다.

싱그런 ‘생명’의 꽃 불암사서 피다

생명나눔, 6일 산사음악회

빗물을 머금고 더욱 활짝 핀 국화가 불암사를 물들였다. 내리던 비가 그치고 맑게 갠 가을하늘이 경내에 드리워지자, ‘생명나눔 산사음악회’를 찾은 인파가 도량을 가득 메웠다.

10월 6일 (사)생명나눔실천본부와 남양주시가 함께한 ‘제10회 생명나눔 산사음악회와 토크콘서트’를 찾은 1000여 대중이 남양주 불암사서 깊어가는 가을 정취를 만끽했다.

2007년부터 10회째 이어온 산사음악회는 문화공연과 더불어 생명나눔의 참뜻을 알리고, 장기기증운동에 동참한 기증자와 공로자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소리꾼 이장학 씨와 마하무용단 등의 공연으로 문을 연 이날 행사는 △일면장학금 전달 △환자치료비 지원 △공헌자 표창 등 순으로 진행됐다. 이후 문화공연 1부는 보현 스님의 토크콘서트, 2부는 가수들의 무대로 이어졌다. (재)일면장학회는 봉선사 능엄학림 고부 스님 외 8명 학인 스님, 불자 청소년 및 대학생 7명 총 16명에게 소정의 장학금과 증서를 수여했다.

아울러 장기기증운동 확산에 기여한 이들의 공로를 표창하는 시간도 있었다. 김지원 기자

2018 서울노인영화제

10월 24~27일, 충무로서 섹션별 상영회 개최 눈길

세대 간 공감과 소통을 지향하는 ‘2018 서울노인영화제’의 전체 상영작과 상영 시간표가 공개됐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산하 서울노인복지센터(센터장 희유)는 “오는 10월 24일부터 27일까지 충무로 대한극장서 개최되는 2018 서울노인영화제는 개막작 〈꽃손〉을 비롯해 단편경쟁작 24작품과 초청작 등을 상영한다”고 말했다. 특히 국제영화제로서 국내 영화뿐만 아니라 브라질, 스페인, 중국 등 해외 13개국 22작품도 초청해 선보일 예정이다.

이번 영화제는 국내 62 · 해외 22작품을 다양한 섹션으로 나눠 상영한다. ‘명예의 전당’ 섹션서는 지난 영화제 수상작 감독들의 새로운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다. ‘국내 특별전’은 현 시대 국내의 다양한 사회적 이슈들이 노년층의 삶과 어떻게 교차하는지 살펴볼 수 있다. 김지원 기자

“폐불위기서 불교 지켜낸 스님, 선양 필요”

‘문정왕후와 백곡처능의 호법활동’ 봉은사 10월 2일 학술세미나 총무원장 원행 스님 기조강연 ‘처능 스님 재조명 · 선양’ 강조


서울 봉은사(주지 원명)와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연구원은 10월 12일 봉은사에서 ‘문정왕후와 백곡 처능의 호법활동’ 주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조선 후기 극심해진 불교탄압에 목숨을 걸고 맞선 스님들을 조명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서울 봉은사(주지 원명)와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연구원은 10월 12일 봉은사에서 ‘문정왕후와 백곡 처능의 호법활동’ 주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특히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백곡 처능의 간폐석교소’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펼쳐 눈길을 끌었다.

처능 스님은 조선의 18대 왕인 현종 당시 폐불 위기 속에 상소문 형식의 ‘간폐석교소’를 올린 대문장가이자 학승이다.

원행 스님은 박사 논문으로 함허선사의 ‘현정론에 관한 연구’를 쓴 바 있다. 함허 선사도 조선 초 불교탄압시기 불교가 정법임을 밝히는 현정론을 펴낸 스님이다.

원행 스님은 이날 “처능 스님은 선교와 대외전을 두루겸비한 학승이자 고승으로 죽음을 무릅쓰면서까지 불교교단을 지키려 한 호법승”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처능 스님은 봉은사 중창을 기념하는 봉은사 중수기를 지어 봉은사 역사를 널리 알리고자 했으며, 부당하게 몰수된 봉은사 노비의 환수를 적극 주창하기도 했다”며 “그럼에도 처능 스님은 아직까지 봉은사 역사에서 올바른 평가를 받지 못하는 현실이다.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백곡 처능 스님을 선양하는 사업이 적극 추진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은 “문정왕후와 백곡처능 스님이 없었다면 억불시대 불교와 봉은사가 맥을 이어오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향후 지속적인 조명으로 불교계와 학계에 이들의 역할이 다시금 조명받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원행 스님의 기조강연에 이어 1부에서는 ‘문정왕후의 불교진흥과 봉은사’를 주제로 △탁효정 한국학중앙연구원 연구원의 ‘조선전기 여성불교의 전개양상과 그 특성’ △김상영 중앙승가대 교수의 ‘문정왕후의 불교회생 노력과 그 불교사적 의의’ △강소연 중앙승가대 교수의 ‘문정왕후 시기 불화의 특징과 그 위상’이 진행됐다.

이어 2부에서는 ‘백곡처능의 호법활동과 유불관’을 주제로 △황인규 동국대 교수의 ‘백곡처능의 생애와 호법활동’ △중앙승가대 교수 자현 스님의 ‘간폐석교소’의 이방역(異邦域) 비판에 대한 종합적 고찰 등 발표가 진행됐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고성 화암사 엄홍길 등산 템플스테이

수바위로 유명한 화암사와 국립등산학교가 등반 템플스테이 프로그램 공동 개발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고성 화암사 주지 웅산 스님과 국립등산학교 엄홍길 학교장은 10월 10일 화암사 자우당서 이완 관련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향후 ‘엄홍길 대장과 함께 하는 등산 템플스테이’ 등을 시행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 자리에서 화암사 주지 웅산 스님은 “우리 화암사는 금강산 제 1봉인 신선봉 등 주변 경치가 수려해 주말이면 수많은 등산객들이 찾아온다”며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산악인 엄홍길 대장과 머리를 맞대고, 고품격 등산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을 공동 개발해 불자들이 신행과 등산을 통해 심신을 치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엄홍길 국립등산학교장도 “이번 업무 협약 체결을 시발점으로 양 기관의 교육연수에 필요한 인프라 교류를 활발하게 진행하겠다”고 계획을 피력했다. 고성 화암사=김주일 기자

